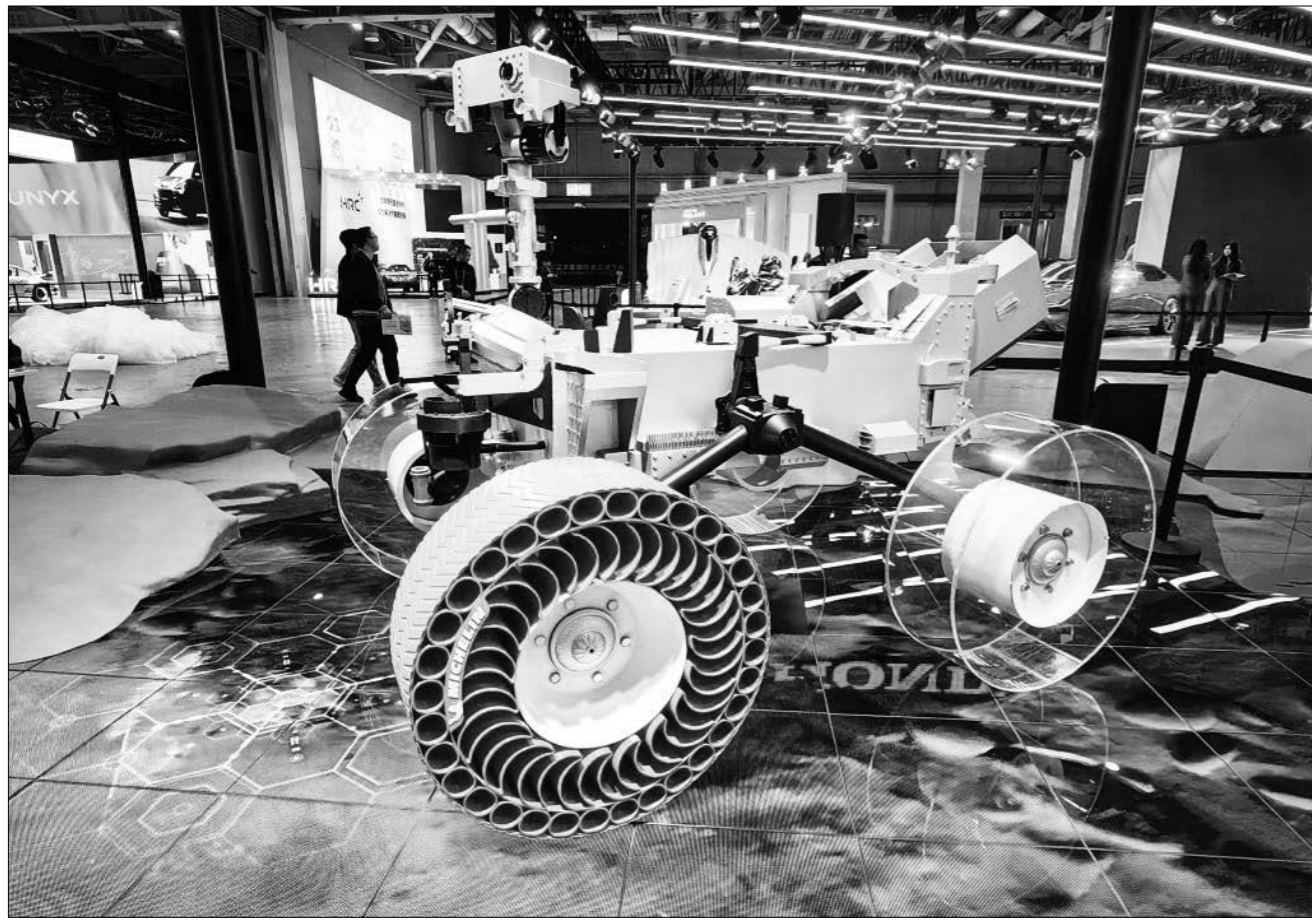


외교부 :

수입박람회 계기로 세계와 중국 시장 공유 희망



제 7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가 5일부터 10일까지 상해에서 열린다. 박람회 기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다이아 제조업 체 미술령(米其林)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달탐사차 전용 에어리스(免充气) 다이아를 선보인다. / 신화넷

외교부 대변인 림건은 11월 1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입박람회 개최는 자주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중요한 조치이자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을 추동하기 위한 실제 행동”이라며 “중국은 국제수입박람회를 계기로 각국과 개방된 케이크를 더 크게 키우고 협력 리스트를 확장하여 모든 국가가 중국 시장의 기회를 공유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 7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5일부터 10일까지 열린다. 통계에 따르면 세계 500대 및 업계 선두 기업 297개와 여러 나라에서 온 약 800개 구매 단체가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림건은 “관련 데이터는 중국의 초대 규모의 시장 매력도를 충분히 보여주며 중국 경제 발전 전망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신뢰를 반영하며 개방과 협력을 통해 호혜상생하려는 모든 나라의 공통된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 국제방송



중국, 한국 등 9개국에 비자 면제

중국이 한국을 비자면제국 명단에 포함시켰다.

외교부 령사사(司)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과의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해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단마르크, 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列支敦士登) 등 9개국 일련된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 면

제 정책을 시행한다.

11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국가의 일반권 소지자는 최대 15일간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중국에 입국해 비즈니스, 관광, 친척 방문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자 면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입국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 신화넷

유엔 보고서 :

세계 여러 지역, 식량 불안정 상황 더욱 악화될 것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10월 31일 발표한 공동 보고서 <긴급 식량 불안정 조기경보>에 따르면 향후 반년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식량 안보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6개월 동안 기아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전세계 22개 국가(지역)에서 지역 충돌, 경제 위기, 기후 영향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식량 불안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특히 팔레스티나, 수단, 남수단, 아이피, 말리 등이 지난 수 년의 식량 불안정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지적했다. 즉각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하고 심각한 접근 제한을 철폐하며 지속적인 충돌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해당 5개 지역의 기근 위

협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조만간 닥칠 라니아(拉尼娜) 현상이 여러 기아위험지역의 농업생산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라니아 현상으로 나이지리아, 남수단 등 국가의 홍수 위험이 악화되고 에티오피아, 케니아, 소말리아 등 지역의 건조한 날씨가 더욱 심해져 이미 취약해진 현지 식량 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구동욱은 충돌지역의 평화 회복을 촉구했다. 그는 평화는 식량 안보의 선결 과제라며 생명을 구하고 심각한 기아와 영양부족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도주의적 휴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신화넷

에스빠냐 발렌시아 리재민 :

삶의 터전이 하루밤 사이에 사라졌다



10월 30일, 사람들이 에스빠냐 발렌시아에서 홍수로 파손된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다. / 신화넷

에스빠냐 정부가 11월 2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에스빠냐 동부 홍수 피해 사망자수는 211명으로 증가하였다. 그중 피해 상황이 가장 심각한 발렌시아지역은 사망자수가 208명에 달했다. 에스빠냐 수상 산체스는 2일 군인과 경찰 1만명을 리재구로 추가 파견해 구조작업을 진행하였다고 말했다.

산체스는 2일 텔레비전 연설에서 이번 홍수 재해는 21세기 이래 유럽에서 사망자수가 두번째로 많은 홍수 재해라며 발렌시아자치구 관원의 청구에 따라 에스빠냐 정부는 5,000명의 군인, 5,000명의 경찰과 국민경위대 대원을 리재구로 파견해 구조작업에 참가시켰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에스빠냐 정부는 5일 긴급내각회의를 소집해 발렌시아를 포함한 여러 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재해복구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산체스는 실종자 수색의 다음 단계의 선차적 과업은 리재구의 기반시설과 통신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표했다. 복구작업은 뚜렷한 진전이 없고 진행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 중국조선어방송넷

홍수가 몰가면서 발렌시아지역의 주민들은 2일부터 잇달아 집으로 돌아가 정리작업과 복구작업을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폐허가 된 삶의 터전을 지켜보면서 무거운 심정을 드러냈다.

발렌시아 주민 후안 : 나의 한평생이 이곳에 있고 모든 기억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다. 부모들이 살던 고장이기도 한데 하루밤 사이 전부 사라졌다. 모든 것들이 물에 휩쓸려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5분 동안 죽은 듯이 있었다.

발렌시아 주민 아레나 : 절망스럽고 무기력하다. 속수무책이다. 자연은 미친 듯이 우리가 살던 이곳을 할퀴고 갔다. 세계 멸망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발렌시아 주민 헤라드 : 너무 무서웠다. 모두들 초조한 마음이다. 나와 부모는 주택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갖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력부족이었다. 그래도 우리가 사는 동네는 다른 동네보다 조금 나은 편이다. 그러나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크다. 이런 힘든 나날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 중국조선어방송넷

스위스센터리사회 주석 :

수입박람회, 경제무역협력 심화의 중요한 플랫폼

주중 스위스 대사를 지낸 스위스센터리사회 주석 다르멜은 최근 스위스 프리부르에서 가진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는 스위스와 중국의 경제·무역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위스와 중국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호전되고 있다면서 CIIE 개최 등 중국의 적극적인 조치는 양국의 경제무역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에

한번 열리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은 CIIE는 중국의 지속적인 대외개방 결심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어 많은 분야에서 볼 때 CIIE는 성공적이라면서 전시회 규모가 크고 참가하는 외국 기업수가 많아 CIIE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스위스센터리는 제 1회 CIIE 개최 이후 한회도 빠지지 않고 매년 스위스 기업들을 조직해 참가하고 있다. 올해 스위스센터

는 30여개의 스위스 기업을 조직해 참가한다. 식품 및 농산물 전시구역에 위치한 스위스센터의 부스 면적은 270평방미터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스위스센터는 스위스 기업의 중국 사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이다. 그는 스위스센터의 조직 아래 CIIE에 참가하는 스위스 기업의 수가 많다면 이는 CIIE의 매력과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했다.

또한 CIIE는 스위스 기업의 중국

시장 개척 능력을 강화하는 ‘충격기’이며 관련 기업에 기업의 이미지와 제품을 선보이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몇년간 스위스센터는 많은 비즈니스 협력을 성사시켰다며 “CIIE가 우리에게 성공 스토리”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CIIE는 기업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소비 심신을 진작시키고 소비 수요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피력했다.

/ 신화넷

중국 시장 개척 꿈꾸는 탄자니아 양봉기업



10월 28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 위치한 공장에서 탄자니아 미래기업유한회사 생산부문 경리 음포넬라가 꿀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 신화넷

탄자니아의 항구도시 다르에스살람에서 북쪽으로 18킬로미터 떨어진 고바. 일전 이곳에 자리한 꿀가공회사의 직원들이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상해에서 열리는 제 7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참가를 위한 막바지 준비로 분주히 보내고 있었다.

탄자니아 미래기업유한회사는 양봉 제품을 생산·가공·포장·판매하

는 회사이다. 이곳은 올해 CIIE에 참가하는 34개 탄자니아 기업중 하나로 탄자니아 기업들은 꿀, 농산물, 섬유, 광물, 수공업품, 공산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회사에서 생산부문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음포넬라는 얼마전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제 7회 CIIE를 통해 벌 화분, 천연 꿀, 소포장 꿀, 밀랍

(蜂蜡) 등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포넬라는 회사의 ‘자미 허니’라는 브랜드로 제 7회 CIIE를 통해 양봉 제품 시장을 개척 및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약 1년전 설립된 회사는 올 2월 가정·호텔용 소포장 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소포장 꿀 가공기계를

중국에서 구입한 후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음포넬라는 이번 CIIE 참가는 탄자니아 무역개발청의 소개 덕분이라고 밝혔다. 탄자니아 무역개발청은 현지·해외 시장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CIIE에는 중국의 전세계 전산업체들이 참가하는 만큼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또한 “꿀은 고혈압, 비만, 화상 치료 등에 사용되며 밀랍은 산업용으로도 리용된다.”고 설명했다.

음포넬라는 남남협력을 통해 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상품의 생산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 노하우를 얻고 있다며 남남협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산 기계가 발전도상국 특히 아프리카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도입한 기계 덕분에 제품의 생산 규모와 품질을 높일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탄자니아 통상산업개발부 부장 오마르 사이드 사반은 제 7회 CIIE가 세계 최대 소비시장에 속하는 중국에 탄자니아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탄자니아 제조’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 신화넷